

## 임금삭감/단협개약에 단호한 반대투표로 맞서자!

- 실망과 두려움을 넘어 반대투표로 저항의 목소리를 보여주어야.

### ● 임금삭감과 '상시퇴출제' 로 되돌아온 백기투항의 댓가

백기투항의 댓가는 '역시나' 였다. 노동조합 30년사에 최초라는 임단협 '백지위임' 에 대해 회사는 즉각 '임금동결' - 사실상의 삭감 - 으로 화답했다. 5. 21일자로 노동조합에서 발표한 내용 및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가합의안' 을 살펴보면, 우선 임금에 대해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임금삭감안에 다름 아니다. 우선 '수당개선' 이라는 허울 아래 각종 수당이 폐지되었다. 운전수당, 건강관리비 등이 폐지되었으며, 교대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률이 축소되었다. 그리고 고과인상률 평균이 3.2%에서 2.7%로 하락하였다. 노조의 설명자료를 보면 '밴드승급자' 에게 지급될 수당인상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과인상률을 조정했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상위 10%에게 인센티브 성격으로 부여될 수당의 재원을 평범한 90% 직원들의 임금을 깎아서 마련한다는 뜻이 아닌가? 올해 성과급도 이미 최저기준인 735%인데 여기에 더 줄어든 알량한 고과상승분을 얹어봤자 올해 임금상승률은 물가상승률에도 한참 못 미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소위 '(밴드)승급제도' 부활로 혜택을 볼 소수가 아닌 90%의 직원들 (밴드1급)들에게는 이번 '가합의안' 은 동결에도 못미치는 '삭감합의안' 에 불과하다.

더 기가 막히는 개약안은 '면직' 제도의 도입이다. F등급을 2회 연속으로 받을 경우 대기발령에 이어, '면직' 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그야말로

'상시퇴출제' 에 다름 아니다. 규정상 5%의 직원들은 매년 F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동료 조합원을 언제든지 퇴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기를 회사에게 쥐어준 것이다. 결국 노조가 '백기투항' 하며 쥐어준 칼자루를 회사가 마음껏 휘두른 결과 이번 '가합의안' 의 본질이다.

2012년 통신3사 임직원 급여 비교

	SKT	KT	LGU+
동기이사 평균 급여	30억 9500만원	13억 2900만원	9억 3000만원
직원 평균 급여	9881만원	6200만원	6400만원
직원 평균 근속연수	12.2년	19.6년	6.6년

▲ 통신3사중 이미 가장 낮은 연봉수준. 그런데 이마저 더 줄어들 판

우리는 조합원들에게  
실망과 두려움을 넘어  
반드시 반대투표를  
행사하기를 호소한다.

● 조합원의 피눈물

이뿐만이 아니다. 단체협약에서 총 12개의 조항을 갱신했다고 하는데, 앞에서 언급한 ‘면직’ 제도의 도입을 포함하여 조합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독소조항들이 여기저기 눈에 띈다. (3면 기사 참조) 아무리 회사한테 칼자루를 그냥 쥐어줬다고 하지만, 이런 종류의 임금삭감 / 단협계약안을 ‘가합의안’ 이라고 조합원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의 후안무치가 놀라울 따름이다. 정윤모위원장은 ‘KT가 처한 캄캄한 경영현실’ 을 운운하며 양보를 정당화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1년 반에 걸쳐 현장을 순회했다면서 회사의 어려움만 보고 조합원이 흘리는 피눈물은 외면하는가?

회사가 어렵다지만 KT는 적자기업이 아니다. 이석채 회장의 경영실패로 순이익이 줄었다고 해도 작년도 KT의 당기순이익은 7,193억원이었다. KT가 위기라면 그것은 낙하산 체제의 잇단 헛발질경영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책임져야 할 낙하산들은 오히려 승승장구하는데, 왜 엄한 직원들이 고통의 몫을 다 떠안아야 하는가?

● 도저히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비록 노동조합은 백기투항을 했더라도, 조합원들은 이번 ‘가합의안’ 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투표를 던짐으로써 아직 KT노동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물론 어용노조에 대한 극도의 실망감과 회사의 집요한 개입에 대한 두려움으로 울며 겨자먹기의 심정으로 찬성표를 던지는 조합원이 있고 이를 회사와 어용노조는 이용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꼭 조합원의 분노를 보여줄 때이다. 우리는 조합원들에게 실망과 두려움을 넘어 반드시 반대투표를 행사하기를 호소한다. 민주동지회 또한 모든 할 수 있는 투쟁을 전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kate 열린토론폰방에 올려진 직원들의 목소리

[ 임단협 백지위임을 바라보면서 ]

● 회사에서2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으니 연말까지 무노동 무임금하라고 하면 수용할 건가요? kt 역사상 30년만에 처음있는 일.. 위원장님 역사에 길이 길이 남으시겠습니다.

● 진짜열받네

노조가 임단협을 안하면 하는 일이 뭔가요? 이걸 마치 편의점 알바가 난 놀테니 물건값은 손님마음대로 내고 가세요라고 하는 경우 같네요

● 일임이 사실이라면

임금협상을 회사에 일임하는 kt노동조합은 회사조합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만 내려오시는게 좋겠습니다.

● 한심하네

협상 자체를 포기하다니... 강 노조 해산해라

[ 임단협 '가합의안'이 발표된 후 ]

● 뭐

임금이 동결된다면 최소한 사기 진작을 위한 일회성 격려금 지금이라도 합의에 들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차리리 노조 해체해서 자동으로 임금 1% 상승시켜주든지..

● 못난이

정말이지 말이 나오지 않네요~~~ 어떻게 노조가 이럴 수 있는지.. 정답이 없네요. 조합간부들에게 양심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옆에 있다면 XXX나게 패주고 싶습니다.

● 노조

KT노조는 희망이 없는 조직입니다.~ 그런 노조를 뽑은 우리도 책임이 크지요~ 투표로서 당당히 나아갑시다~

● 조합원

당당하게 투표합시다~~~

# 독소조항으로 가득찬 단체협약 개약안

노사가 발표한 단체협약 갱신안들에는 조합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개약안들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 ● 상시퇴출제도 '면직' 조항 신설

언론보도에 소개된 내용 중 소위 '철밥통 인사 관행'을 타파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KT에 존재하는 철밥통이라면 '낙하산 철밥통'과 '어용노조 철밥통' 두 종류만 있을 터인데 그걸 타파하겠다는 의미는 당연히 아닐 것이다. 결국 확인된 내용은 상시퇴출제도'의 도입인 '면직' 항목의 신설이었다.

2년 연속 F등급을 받은 직원의 경우 '대기발령'을 거친 후 '면직'이 가능하다는 것이 면직항목 신설의 내용이다.

이는 결국 상시적인 정리해고가 가능해졌다는 이야기에 다르다. 지금까지는 징계가 아니면 해고가 불가능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퇴출대상'으로 선정한

인원을 퇴출시키는 데 '면직' 조항을 활용하여 결국 정리해고와 마찬가지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반드시 '면직' 절차까지 갈 필요도 없다. 이 조항은 만들어진 것 자체가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다.

생각을 해보자. 전 직원의 5%는 매년 F등급을 받게 되어 있다. F등급을 받은 직원에게 내년에도 다시 F를 받으면 면직이 가능하다는 협박과 함께 명예 퇴직을 강요할 경우 많은 직원들이 실질적인 압박으로 느낄 것은 당연하다.

얼마전 개정된 정년연장법안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셈이다. 결국 이는 그 동안 몰래 직원퇴출프로

그램으로 운영되어오다가 법원의 판결로 철폐를 맞은 'CP퇴출프로그램'을 노조가 합의해 준 것에 다름아니다.

## ● 대체휴일제 도입 / 수당제도 개악

대체휴일제 도입 또한 받아들여선 안될 것을 합의해준 것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거세다. 대체휴일을 사용하게 되면 직원들은 휴일에 근무하고서도 휴일근무수당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회사는 경비절감을 위해 대체휴일 사용을 노골적으로 강요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만이 아니다. 현재 현업기관 현장의 근무여건이 평일에 맘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는가? 대체휴일제 도입은 가뜰이나 인원부족에 시달리는 현장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합의에 다르다.

한편 각종 수당들이 폐지되었다. 운전수당, 건강관리비 등이 폐지되었다. 교대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률도 축소되

었다. 다른 민주노조들은 '통상임금'에 대한 전향적 법원판결에 힘입어 각종 수당 지급율을 높이려고 온갖 힘을 쏟고 있는 이때에 그 움직임에 동참하기는 커녕 수당을 폐지하고 개악하는 '통큰' 양보를 하는 노동조합이 과연 노동조합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독소조항들이 가득찬 단체협약안을 받아들여선 절대 안된다. 회사와 노동조합은 일부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가게 설계된 '밴드승급제도 도입' 등을 내세워 이를 개선안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본질은 속일 수 없다.



▲ 둘의 웃음을 보는 조합원의 눈에는 피눈물이 흐른다

# 노조민주화를 향해 나아가자

## ● 식물노조? 회사노조!!

이번 노동조합의 '백기투항' 소동을 통해 민주노조를 다시 세워야만 조합원들의 복지와 임금 그리고 노동인권이 지켜질 수 있다는 명백한 진실이 또 다시 뼈저리게 확인되었다.

사실 올 해 임단협 전망이 암울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되었었다. 그 동안 어용 집행부의 행태를 보아할 때 올 해는 집행부가 회사에 큰 선물을 줘야 할 시기였기 때문이다. 어용 집행부의 패턴은 항상 그러했다. 첫 해는 그래도 노동조합 시늬를 좀 해야 할 시기이고, 마지막 해는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그나마 부실한 떡고물이라도 좀 얻어와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래서 항상 임기 2년차에 어용노조는 사고를 쳐왔던 것이다. 예상대로 올 해 정운모 집행부는 그야말로 회사에 '통큰' 선물을 안겨주었다.

이쯤 되면 내년도 방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지경이다.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이 차라리 '식물노조' 라도 됐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기존 조건이 개악될 일조차 없을 터인데 현 노조는 이제 아예 '회사노조' 라고 해야겠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 ●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자

그러나 울분만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이제부터라

도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정운모 집행부가 들어선 지 1년 반, 이제 임기의 절반이 남은 상태이다. 내년 연말에는 다시 선거가 돌아온다. 내년 선거에서는 기필코 어용노조를 민주노조로 바꿔내야 한다. 물론 **지속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파괴해온 회사와 어용노조의 행태를 감안할 때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다.** 그러나 **결코 불가능한 과제는 아니다.** 조합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단 한 번 한 뜻으로 움직이는 순간 저들의 온갖 술책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 ● 민주세력의 연대

이를 위해 '민주동지회'는 KT내 모든 민주세력의 연대를 제안하고자 한다. KT민주동지회는 결코 우리만이 대안이다라는 속 좁은 태도를 취하지 않고자 한다.

민주동지회는 **현재의 어용노조체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세력이 '노조민주화' 의 기치 아래 함께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 구심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케이티 민주동지회는 조합원들 모두의 힘으로 반드시 민주노조를 바로 세워내기 위한 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 ● 2013년 KT 전국민주동지회 총회 개최

KT내 민주노조운동을 추구하는 현장조직인 KT 전국민주동지회는 지난 4월 27일 대전 민주노총대전본부에 모여 2013년 총회를 힘차게 개최하였다.

전국에서 모인 활동가 동지들은 2013년 민주동지회의 조직 진로 및 활동방향을 주제로 하여 늦은 시간 까지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민주동지회는 KT 노동자들의 노동인권과 민주적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현 노동조합을 민주노조로 바꿔내기 위한 활동인 '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 활동을 사업의 중심에 놓고 더욱 힘찬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